

# Opera MADAMA BUTTERFLY



아름다운 나비의 날개짓에 찾아온 첫사랑 그리고 배신,  
상처입은 한 여인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 Story Line 줄거리

부유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의 죽음과 집안의 몰락으로 인하여 게이샤의 삶을 살게 된 나비부인은, 중매쟁이인 고로의 소개로 미국 해병 장교인 핑커톤과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을 위해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았지만, 나비부인은 핑커톤과의 행복한 사랑을 꿈꾼다. 하지만, 미국 본토로 돌아간 핑커톤은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 미국 영사인 샤프레스는 핑커톤을 잊으려하지만, 나비부인은 핑커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보여주며 그럴 수 없다고 한다. 드디어 미국으로부터 군함이 도착하는 것을 발견한 나비부인은 온 밤을 꽃으로 장식하며 핑커톤을 기다리지만, 밤새도록 핑커톤은 나타나지 않는다. 잠시 나비부인이 휴식을 취하려 간 사이 핑커톤이 한 여인과 함께 샤프레스와 함께 방문하는데, 이를 본 스즈키가 추궁하자 미국에서 새로 얻은 부인임을 밝히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만다. 핑커톤이 다시 결혼한 것을 알게 된 나비부인은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칼에 새겨진 문구를 읽으며 자결한다.

"명예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 Main Dialogue 주요대사



핑커톤

Dovunque al mondo lo Yankee vagabondo si gode e traffica sprezzando i rischi.  
세상 어디든지 방랑하는 양키는 위험을 무릅쓰고 즐겨 거래하지,

La vita ei non appaga se non fa suo tesoro i fiori d'ogni plaga ... d'ogni bella gli amor.  
모든 나라의 꽃과 미인을 자기 보물같이 못잡으면 ... 인생의 가치없소.

나비부인 (초초상)

Ieri son salita tutta sola in segreto alla Missione.  
Colla nuova mia vita posso adottare nuova religione.

어제, 난 교회당을 홀로 몰라 갔었지요. 나의 새로운 인생과 함께 새로운 종교를 갖기로 했어요.

Vogliatemi bene, un ben piccolino, un bene da bambino, quale a me si conviene.  
날 사랑해 주세요. 조금만 사랑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는 애기 사랑하듯 해 주세요.

Un bel di, vedremo levarsi un fil di fumo dall'estremo confin del mare.  
어느 맑게 개인 날 저 푸른 바다위에 떠 오르는 한 줄기의 연기 바라보게 될 거야.



## Director & Cast

예술총감독 | 이은희 연출 | 조승철 지휘 | 최재명 안무 | 장인숙

나비부인 | 이은희 고미현 고은영 핑커톤 | 김재명 박진철

샤프레스 | 김동식 이현준 스즈키 | 권소현 신진희 고로 | 김진우 본조 | 이대혁 정주영 케이트 | 이하나 신관 | 이동현 최바을

오케스트라 | 슈바빙 예술인 오케스트라 합창 | 전북대학교 디에시스 앙상블

합창지도 | 이현준 음악코치 | 정 원 서정희 조연출 | 김정운 의상감독 | 강수영 분장감독 | 이은경